

민속으로 본 전주 문화

송화섭 || 전주대 교수

〈목 차〉

- I. 서 론
- II. 전주의 역사민속 자료
 - 1. 단오절 성황제
 - 2. 단오절 덕진연못 물맞이
 - 3. 전주 덕진 용왕제
- III. 전주 민속문화의 특성
- IV. 맺음말

I. 서 론

최근 문화재청에서 전주에 무형문화유산의 전당을 짓는다는 발표가 있었다. 전주가 그만큼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도시로서 명분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라북도도 판소리의 발상지이다. 그 중심에 전주가 있다. 조선시대 전라도 관찰사가 집무하는 전라감영이 전주에 있었고 조선 후기에 판소리가 크게 성행하였다는 사실은 전주 무형문화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대사습놀이도 전주가 가진 무형문화의 품격을 말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대사습은 향사례(鄕射禮)에서 파생된 소리놀이이다. 조선시대 소리꾼들이 향사례에서 소리를 부르게 직접적인 동기였다.

전주사람들은 예부터 ‘귀명창’이라 불려왔다. 귀명창은 창을 부르는 소리꾼이 아니라 판소리듣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관행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판소리 5마당의 사설에는 사자성어로 된 한문의 문장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한마디로 사서삼경을 한번이라도 읽지 않는 사람이 판소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만큼 수준높은 문장으로 구성된 판소리 5마당을 듣는데 탁월한 사람들이 전주사람이었다는 점은 그만큼 학문적 소양이 높고 품격높은 문화를 즐긴 사람들이 전주사람이었음을 말해준다.

전주문화의 품격은 후백제시대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900년에 전훤은 전주에 후백제를 도읍하고 왕도로서 면모를 갖춘다. 비록 36년의 역사를 가진 왕조였지만, 한국사에서 후백제의 도읍지로서 왕도를 꾸린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가 오늘날 전주전통문화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백제가 멸망하고 난 뒤 전주의

토호세력들은 자기들의 전통생활문화를 즐기며 살아왔고, 시대변천에 따라 생활문화는 민속문화로 정착하였으며, 오늘날 전주문화의 DNA로 남아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전주 민속의 역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전통적으로 계승해온 생활문화가운데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성황제와 용왕제를 중심으로 전주의 민속문화를 언급하고자 한다.

Ⅱ. 전주의 역사민속 자료

1. 단오절 성황제

단오절(5.1-5.5) 풍속가운데 대표적인 민속이 성황제와 물맞이이다. 이러한 전통이 전주에 그대로 스며있다. 전주 성황제 기록은 1199년(신종 2년)에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에 처음 등장한다. 고려말 조선초 전주성황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고 1688년(숙종14년)에 쓰여진 『전주성황사중창기』와 전주 고지도의 성황사 표시와 전주 성황목각상과 전주 동고사적기의 속전기록(俗傳記錄)과 일제시대에 편찬된 『전주부사』를 바탕으로 전주 성황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차례로 전주 성황제의 역사기록을 살펴보자.

(가) 전주성황제신문(全州城隍祭神文)

“삼가 채소·과일과 맑은 술의 제수로써 ①성황대왕(城隍大王)의 영전에 제사지냅니다. 내가 이 고을에 부임하여 나물 끼니도 제대로 계속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냥꾼이 사슴 한 마리를 잡아와서

바치기에 내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 ‘이 고을에는 예부터 매월 초하루에 저희들로 하여금 사슴 한 마리와 꿩 토끼를 바쳐 제육(祭肉)에 충당하게 하고, 그런 뒤에 ②아리(衙吏)들이 공봉(公俸)을 받아서 주찬(酒饌)을 갖춰 성황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곧 하나의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하기에, 내가 노하여 매질하면서 꾸짖기를 ‘네가 어찌 나에게 알려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짓을 하느냐? 무릇 ③제 고을의 선물 꾸러미나 청탁 고기를 거절하지 않고, 산의 살찐 노루나 매끈한 토끼와 곰 발바닥 코끼리 발가락과 바다의 상어·숭어·메기·잉어와 새벽 비둘기, 야생 고니 등 맛난 음식을 불러들여 수두룩 앞에 쌓는 자들이야 차마 그 진미를 홀로 다 먹을 수 없어서 대왕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어찌 나물 끼니로 가난하게 지내는 나로서 달마다 생물을 죽여 귀신을 살찌게 하기 위해 내 자신의 죄를 더하겠는가? 그리고 귀신도 정직한 귀신이라면 나에게 이런 것을 바라지 않으리라.’ 하고는, 곧 아리(衙吏)들에게 훈계하여 이제부터는 다시 고기를 쓰지 않기로 하고 채소·과일과 주찬 따위의 진설은 알아 하게끔 맡겼다고. 나의 약속이 이러하니, 대왕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으나, 바라건대 너그럽게 나를 완악하여 옛 관례를 따르지 않는다 하지 마시오.”

(나) 全州城隍祠重創記

州有春秋位爲而祭者三 社稷厲壇而城隍亦其一也 旣壇而祭之 則不用爲塑像而塑像之設昉於何代 蓋靈應素者 水旱疾病州之士女必禱焉 年則像亦不爲無助也 年久屋老丹碧漫漶瓦桷傾圯將有腰膂之患州之父老謨者衆而欲重修于以壇樾而僉 古基面北 槐陰覆屋 雖善楫治 末十稔又將如前 移建坐卯 卽世謂甄萱古宮墟也平臨西海 俯看

落照 奇勝敞豁 登之者可一覽而盡之棟宇既易而新之 金碧侖奐 神如有靈 將事者宜福祿而錫之 若夫海吏之行 州民之災 神在此地 神必冥佑 而將事者之姓字 恐久而有泯 遂刊干左

崇禎紀元後再戊辰閏七月 日

(다) 『조선왕조실록』의 성황신상

全州의 성황위판(城隍位版)에 ‘전주부 성황지신(全州府城隍之神)’이라 쓰고,

판위(版位) 뒤에 봉안(奉安)한 신상(神像)이 모두 5위(位)이온데, 영락(永樂) 11년 6월 일 예조의 수교(受敎)에, 성황의 신(神)은 다만 신주(神主) 1위만을 남겨 두되 목패(木牌)에 쓰며, 거기에 설치한 신상(神像)은 일체 다 철거하여 사전(祀典)을 바로잡으라 하였은 즉, 이제 이에 설치된 신상도 또한 철거하여야 합니다³²⁾.

(라) 성황대왕의 속전기록

신라 56대 경순왕의 次子인 法水王子가 출가하여 梵空이란 僧名을 얻었다. 梵空和尚은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귀부한 뒤 東固寺에 입산수도하여 亡國의 설움을 달랜다. 梵空은 新羅 宗廟 및 父王을 숭모하여 이곳 境內에 祠堂을 세운 뒤, 범공은 金傳大王과 가족일가의 塑像을 제작, 봉안하여 辰夕享祀하였는데, 神像 5위는 神壇 右측에서부터 第二夫人 崔氏, 大王, 太子(崔氏所生), 太子妹, 正后許氏 순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이 신상오위는 북쪽을 향하여 봉안되어 있었으며, 후에 사람들은 이곳을 城隍祠로 호칭하였으며 김부대왕절, 진불대왕절이라 부르기도 하였다³³⁾.

32) 『조선왕조실록』 권 49 세종 12년조

(가)(나)(다)(라)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는 고려시대 중기 전주 성황제를 지내는 광경을 묘사하였다.

①의 내용은 전주 성황신의 성황대왕이라 하고 있다. 대왕의 존호를 붙인 것은 그만큼 신격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주의 성황신은 처음부터 성황대왕일 가능성이 크다. “성황대왕”은 전주의 성황신이 고려 중기부터 이미 성황대왕의 신격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성황대왕의 신격은 중국적 유품이지만 그만큼 전주 성황신의 위상이 높았음을 말해주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고려시대 전주의 성황사가 위치한 城隍峰(현 승암산)은 全州의 鎭山이었으며, 성산이었다. 1800년대 고지도에는 城隍臺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전주 성황은 조선 건국 직후인 1393년(태조 2년)에 완산(完山)의 鎭山에 계국공(啓國公)의 封爵을 하고 있다. 고려시대 도읍지였던 개성의 송악신에게 내렸던 진국공(鎭國公)과 같은 공작의 작위를 전주 완산성황에게도 부여한 것이다. 그만큼 전주의 진산인 성황봉의 성황신이 지체높은 호국신이란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전주 성황신의 신격은 전주의 지방세력의 정치적 위상과 품격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고려시대 내내 전주의 성황신은 김부대왕의 권위 만큼 위상이 높은 城隍大王이었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3년(태조 2년)에 완산 성황에 가봉한 啓國公 봉작은³⁴⁾ 고려시대에 전주 지방세력의 권세와 신분적 지위가 왕도의 개성세력과 맞먹을 정도였음을 말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33) 「東固寺事蹟記」: 《全北의 傳統 寺刹》 I 권, 1997 : 《全州府史》 1943, 934쪽

34)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태조2년

②의 내용은 전주 성황제를 지내는데, 아리들이 공봉을 받아서 주찬을 갖추었다는 것인데, 이는 관아의 서리들이 월급을 받아서 성황제를 지내는데 술과 음식을 제물로 준비하여 바쳤다는 것이다 (현재로 말한다면 전주시청의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아서 일부를 성황제비로 헌납하였다는 내용). 이 내용은 전주 성황제가 국제관사(國祭官祀)였음을 말해준다. 국제관사는 국가제사요, 관청에서 주관하는 제사였음을 말해준다. 고려시대에 성황제는 국가제사였으나 조선시대에 음사로 규제를 받았으나 전주 성황은 조선시대에도 小祀의 대상이었다. 전주 성황을 음사로 규제하지 못했던 것도 전주 지방세력들의 권세를 꺾지 못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관아의 아리들이 전주 성황제를 주도해온 것이 관례였다는 점에서 고려시대부터 전주 성황대왕과 토호세력들의 밀접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례를 복원하는 것을 전주시에서 검토해볼 일이다.

③의 내용은 전주 성황제에 바치는 제물을 주위의 여러 고을에서 청탁하는 선물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고려시대 전주 향리집단들이 주관한 성황제는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규모였고 번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도호부와 주변의 군현관계는 위계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전주의 성황제에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이 산해진미이며, 지금도 구할 수 없는 곰발바닥과 사슴, 토끼, 코끼리발가락, 상어, 잉어, 새벽비둘기, 야생 고니 등 매우 귀한 생물을 제물로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성황제의 위상이 높고 극진하게 지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주 음식의 품격은 고려시대부터 명성을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러한 전주음식의 DNA가 오늘날까지 내려온다고 보아야 한다.

전주의 성황신앙이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과 지방아리들이 거행하는 성황제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가)의 기록은 고려중기인 1199년(신종 2년)에 이규보(1168~1241)가 완산(현 전주)의 司錄兼掌書記로 부임해와서 겪은 내용의 제신문이다. 이규보가 부임한 이후 성황제를 지내는 광경을 목격하고 비록 성황제물의 낭비와 폐단이 심하다고 힐난하면서도 지방관은 향리들을 매질하면서 꾸짖지만 훈계하는 선에서 제의방식의 변경을 주문하는 정도이다. 지방세력과 지방관 사이에 보이는 앓는 제사권의 갈등 요인이 보이는 부분이다. 지방관이 제어하지 못할 정도 전주 성황제는 융성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고려 인종, 의종대(1122~1170)에 성황신앙이 전국 각 지방으로 확산하는 것에 편승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과 지방세력간에 성황제사권을 장악하려는 대립적 관계가 (가)의 내용에 스며있다. 전주 성황제가 이미 관례로 정착되었음을 고려할 때에, 고려 초기부터 전주의 강력한 토호세력, 즉 호장과 향리세력이 주도했던 지방자치적인 성황제였으며, 중앙정부의 지방관도 지방세력들이 주도하는 성황제를 중단시키거나 제지할 만큼 행정력을 행사하지도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전주에 거주하는 지식인들은 단오제의 명성을 ‘강릉에게 빼졌어’라고 탄식하는 분들도 있는데, 강릉단오제보다는 위상이 높고 웅장하였던 전주단오제를 복원하는 길이 전주의 권세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나)의 내용은 조선 숙종년간의 기록이다.

이 기록에 드러난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조선시대 성황제는 사직단, 여단과 더불어 三壇一廟制가 정착되어 있었고

전주 고을사람들이 춘추로 제사를 봉행하는 관행이 있었다. 둘째, 성황사에는 소상의 성황신상이 봉안되어 있었다. 조선초에 전국 성황에 성황신상을 철거하고 위판으로 대체해라고 지침을 내렸는데도 전주 성황사에는 조선 후기까지 성황신상이 있었던 것이다. 셋째, 성황대왕의 영험하여 가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면 전주 고을의 덕망높은 부녀자들이 찾아와 반드시 기도하였다. 전주 부녀자들이 성황사의 성황신을 찾아가 기도하는 민속이 조선 후기에는 정착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성황신앙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향리집단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고을 수호기능에 비중이 더 컸겠지만 후대로 내려올수록 각 향촌사회의 민속신앙으로 정착하면서 부녀자들의 기도처였음을 알 수 있다. 성황신이 지역주민들에게 祈禳祈福(禱雨, 治病)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조선 후기에 내려와서는 단청이 낡고 성황사가 기울어 도괴 직전에 지역주민들이 성황사를 이전하는데 합심협력하여 坐卯移建한다는 내용이다. 전주 성황사는 현재 동고사에서 견훤대왕궁터 아래로 옮겨졌음을 밝혀놓은 내용이다.

(다)의 내용은 전주 성황사에 성황신상이 5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주의 성황신은 5위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초 정부의 신상 철거 지침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까지 신상과 位版이 있었으며 신상은 5위였고 소상이었다. (라)의 내용에 따르면, 현전하는 전주의 성황신상은 5위의 목각상이고 속전하는 기록에 따르면, 5위의 성황신상은 신라 56대 경순왕(김부대왕)의 일가라는 점이다.

전주의 성황신은 처음부터 김부대왕을 성황대왕으로 배향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성황제의 주도세력이 전주의 토호세력이고 이 토호세력들은 견훤정권하에서 성장한 지방세력이고 이들은 필시 김부대왕을 성황대왕으로 추존해야 할 필연적인 인연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김부대왕이 실제 대왕이었던 만큼 성황대왕의 신격으로 배향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문제는 왜 전주의 성황대왕이 김부대왕 일가나 하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전주의 토호세력들이 일치단결하여 신라 56대 마지막 임금이었던 김부대왕을 성황대왕으로 배향하는데 동의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해답은 후백제 기간에 신라 경주에 거주하였던 친견훤의 왕족과 귀족들이 신라 멸망이후 전주로 이거해와 정주하였고, 그들이 후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도 성황제를 주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라)의 동고사 사적기에 전해오는 내용과 속전기록이 말해준다.

(라)의 내용은 전주 동고사 사적기의 내용 일부이다.

전주 동고사의 역사는 일제시대로 알려졌다. 동고사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나)에 말해주듯이 성황사가 그곳에 있었고, 숙종 년간에 성황사를 현재 견훤궁터 부근으로 옮기고 있다. 그후 옛 성황사는 폐허 상태로 있다가 일제시대에 동고사가 들어섰고, 그곳에서 전해오는 속전의 내용을 정리해놓은 것이 동고사 사적기이다. 이 사적기는 현재 동고사 약수터 옆에 세워진 사적비에도 그대로 쓰여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법수왕자가 신라 멸망이후에 합천 해인사로 출가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열전에 등장한다. 해인사로 출가하여 얻은 법명이 범공화상이었으며, 범공화상을 모셔온 분이 견훤왕

이었고, 범공화상이 5위의 성황신상을 봉안해놓고 신석으로 향사하였던 것이다. 견훤왕은 왜 범공화상을 전주로 모셔온 것일까? 왜 범공화상은 김부대왕만 모셔놓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5위를 봉안하였는가가 미스터리이다.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그의 형인 마의태자(麻衣太子)를 봉안한 것이 키워드라 할 수 있다.

2. 단오절 덕진연못 물맞이

전주단오제의 두 축은 성황제와 덕진연못 물맞이였다. 성황제는 남자 중심의 향리집단들이 주도하였다면, 물맞이는 여자 중심의 부녀자들이 주도한 세시풍속이었다. 지금도 매년 단옷날에 덕진연못을 찾아가면 물맞이를 즐기는 부녀자들을 만날 수 있다. 단옷날에 굳이 인위적 축제판을 벌이지 않아도 덕진연못에는 사람들로 붐볐다. 불과 30여년전 만 해도 단옷날에 관습적으로 덕진연못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주민들도 단옷날에 덕진연못을 찾아오는게 관행이었다. 덕진연못에서 만난 어느 촌로는 “단옷날 덕진연못에 오지 않으면 단오를 안완것 같아...”는 말에 전주 단오절 물맞이의 전통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실감할 수 있다.

단오절(5.1-5.5)은 인위적인 축제가 아니라 세시풍속의 연중행사를 말한다. 세시풍속은 1년 24절기의 역법에 따라 농사를 짓고 살아온 사람들이 오랜 세월동안 관습적, 주기적인 생활양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천체운행의 질서와 계절에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단오는 매우 의미있는 큰 명절이었다. 단오는 계절 전환의

신호이다. 단옷날까지는 봄이지만, 단오가 지나면 여름이다. 단오를 기준으로 날씨 변화를 확연하게 실감할 수 있다. 농촌에서는 대체로 단오 이전에 모내기를 마친다. 봄 파종을 마친 후에 농민들은 잠시 틈을 타 풍년을 기원하는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고 음주가무를 즐기며 노는 것이 전통적인 단오제의 본질이었다.

단오날에 즐기는 음주가무는 단순한 놀이문화가 아니라 통과례를 거행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봄의 문을 닫고 여름의 문을 여는 상징적인 날이 단오날이다. 여름맛이를 기념하여 사람들이 덕진연못에 나아가 물맛이를 즐겼다. 보건의료기술이 침과 단방약에 의존하던 시절에 여름철에 부스럼나지말고 건강하게 지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데리고 덕진연못을 찾아 몸씻는 일이 통과례였고, 생활관습이었다. 지금도 사오십대에 전주에 살았던 사람들은 남녀 불문하고 어머니나 할머니 손에 이끌려 덕진연못에서 발가벗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덕진연못의 단오절 물맞이는 대단했다. 아마 현재 전국 도시가운데에서 물맞이 풍속이 살아서 전승되는 곳은 전주밖에 없다. 덕진연못 물맞이가 세시풍속의 관행으로 정착하였다는 것은 무형문화재의 가치가 민속자원으로 보아야 한다. 전주시에서도 물맞이 문화를 더 번창시켜 전주단오제를 무형문화재로 지정신청하여 전주의 전통문화를 복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대체로 단오절 풍속은 창포뿌리를 삶아서 우려낸 물로 머리를 감고, 창포뿌리를 꺾어서 다듬어 아녀자들의 머리에 꽂아 端午粧하는 풍속이 있었다. 조선후기 바깥 출입이 어렵던 집안의 부녀자들에게 세시풍속은 바깥출입을 공인받는 기회였다. 바깥출입의 기회는

삼짇날, 단오, 칠석, 백중, 추석 등 이었는데 단오절이 으뜸이었다. 단오절에 여성들은 바깥으로 나와 집안일의 고통과 힘겨움을 벗어 던지고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말 그대로 해방절을 즐겼던 것이다. 부녀자들에게 단오절은 해방절이었다. 士女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아름답게 뽀내는 민속을 즐겼지만, 庶女들은 덕진연못에 가서 몸에 걸친 옷가지를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목욕하는 관행을 일삼았던 것이다. 단옷날 만큼은 가정주부라는 겉옷가지를 훌렁 벗어던지고 해방의 기쁨을 온몸으로 즐기며, 부정을 쫓고 죄악을 씻어내는 의식을 거행하였던 것이다.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여름맞이 통과례를 실행하였다. 단옷날 물맞이를 하므로써, 여름을 맞이하고 지내면서 피부병과 질병을 물리치기를 소망하면서 바가지로 물을 퍼서 온몸에 끼얹었던 것이다. ‘물세례’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다. 물세례는 물로 몸을 씻는데 의식으로서 물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단오날 ‘물세례’는 시간적 통과례였다. 이러한 물세례는 자신의 몸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를 부여하는 물맞이 의식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전주 고을 사람들은 단오절에 덕진연못으로 물러들어 물맞이를 하였을까. 전주사람들은 덕진연못이 聖池요, 그곳의 물을 聖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전주 덕진연못의 물은 고여서 썩은 물이 아니라 샘솟듯이 땅속에서 물이 솟아 나왔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땅속에서 물기둥이 솟아올라 퍼지는 모습이 육안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 연화정을 건축하면서 그 물구멍을 막았다고 한다. 물구멍이 막히고 지하수가 용출하는 곳이 막힌 뒤부터 물이 탁해졌다고 말한다. 불과 수십년전까지만 해도 덕진연못에는 솟아오르는 청정한 물에서 몸을 씻는 물맞이

(정화의례)를 즐겼던 것이다. 지금도 관행적으로 찾아오는 노인들을 보면, 덕진연못에서 물맞이 단오난장이 섰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단오날에 덕진연못 물맞이는 성수로서 몸을 씻는 세례의식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매년 단오절 연중행사로서 물맞이를 해오는 사람들은 덕진연못의 물이 약효가 매우 좋다고 믿어왔다. 덕진연못의 효험에 대하여 인근 덕암마을 주민들에게서 채록한 덕진연못과 관련된 영험성 및 물의 효험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마)-① 부스럼난 애들은 연못에 가서 한번만 씻어주면 일년은 그냥 간다.

② 발이 불덩이같이 뜨거워 이불속에도 넣지 못했는데, 덕진연못에 가서 발을 씻었더니 잊은 듯이 나왔다.

③ 어깨가 아파서 덕진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였는데 아픈기가 없어졌다.

④ 발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연못에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고 오는데, 머리결이 린스로 감은 것처럼 미끈하니 좋다.

⑤ 덕진연못에서 자라는 창포뿌리, 줄뿌리, 연뿌리가 썩어서 만들어진 약물이 덕진연못 물이다.

⑥ 눈병이 나면 덕진연못의 물을 씻으면 낫는다.

⑦ 덕진연못의 자라를 잡아다가 시장에 판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듬해에 아이를 낳았는데 자라같은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는 꼭 자라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16살에 죽었다고 한다³⁵⁾.

35) (J)①~⑦은 필자가 5년전인 2003년에 덕진연못 인근 덕암마을에서 채록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전주 덕진연못은 매년 단오절에 전주권의 부녀자들에게 해방의 공간이었고, 해방의 기쁨을 몸부림으로 누리는 기회였다. 혼자만 즐기지도 않았다. 자녀, 손자들의 손잡고 나와 가족단위로 물맞이를 즐기는 풍속이 크게 번성하였던 곳이다. 부녀자들은 모처럼 바깥출입을 하면서 몸을 씻고 정화시켜 단장한 다음 그네뛰기와 널뛰기를 즐기면서 해방절을 만끽하였던 민속이 아직도 덕진연못에 스며있다. 다시 덕진연못의 물을 샘솟게 하고 그곳에서 단오날 물맞이하는 풍속을 일으키는데 여성단체와 여권신장론자들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 전주권 부녀자들의 해방구를 되찾아 단오해방절을 즐기는 민속을 복원시켜야 한다.

이러한 단오해방절이 자칫 난장판으로 변져 추태를 부리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민속이다.

3. 전주 덕진 용왕제

전주 덕진연못의 무늬이(북서쪽 다리밑)에 용궁각이 있다. 이 용궁각은 불과 30년전까지만 해도 용화부인이 머물면서 용왕제는 지낸 곳이다. 지금 이 용궁각은 옛날 옴팡집이라는 음식점으로 변해있다. 이곳에서 용왕제를 언제부터 지낸 것일까. 먼저 덕진연못의 역사부터 살펴보자.

『조선왕조실록』 중종 20년 8월 1일에 전주 덕진연못 이야기가 나온다. 이 때가 1525년이다. 전라도 관찰사 홍경림이 전주에 거주하는 지방 선비들과 관리 50여명에게 서명을 받아 덕진 제방을 쌓아야 한다는 청원서를 서면으로 올리고 있다. 청원서 내용인 즉, 전주는 다른 지역과 같은 고을이 아니라 조선왕조의 왕실이 발상한 지역

이다. 지형이 남쪽은 높고 북쪽이 허하여 바닥의 기운이 분산되기 때문에 진산을 건지산이라 하고 제방을 쌓아서 덕진이라 하였다. “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1481년(성종12)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실려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 내용은 덕진제방이 조선 전기에 축조되었음을 말해준다. 덕진 제방은 전주의 북서쪽이 공허하여 풍수비보 차원에서 건지산과 가련산을 연결하는 토축 제방이었다. 제방은 물이 흐르는 곳에 흙으로 독을 막았다는 표현이다. 제방은 치수를 목적으로 쌓는 것인데, 덕진 제방은 흐르는 물을 가두어 땅의 기운을 보전하려는 비보풍수의 목적에서 쌓은 것이다. 덕진에 제방을 쌓을 만큼 물의 양이 많았던 것인가. 18세기 전주 고지도에는 덕진제, 덕진지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덕진제는 제방이라면, 덕진지는 덕진에 연못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연못은 물이 고여있는 물웅덩이같은 곳이다.

덕진연못이 제방을 쌓아야 할 연못이었다면, 물이 솟아나는 연못이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초에 덕진제방을 쌓았으니 연못은 그 이전의 고려시기에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덕진연못은 수리시설을 목적으로 제방을 쌓은 것이 아니라 전주의 북서쪽이 허하여 풍수비보 차원에서 축조한 제방이다. 제방을 쌓아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된 것은 이곳에서 물이 샘물처럼 솟아나온게 직접적인 동기였을 것이다. 용왕제는 썩은물에서 지내는 관행이 없다 항상 물이 흐르거나 깨끗한 샘물같은 곳에서 거행하는 것이 관례다.

고려시대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 37권 애사제문에 “전주에서 용왕에게 올리는 기우제”라는 제신문이 전주 덕진연못을 한결 더 성지로 만들고 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A) 「한 나라의 가뭄은 조정에 있는 이들의 수치요, 한 지방의 가뭄은 고을을 지키는 자의 죄라. 생각하건데, 이 남방이 두 경계로 갈라졌으니 나주가 변두리를 들렀고 전주가 그 즈음을 연결하였는데, 어찌 羅州에는 비를 주고 全州만 가물게 하는고? 하늘이 무슨 사가 있어서 그러하랴? 자못 우리들이 정치를 잘못된 것이 그 원인이라, 하늘의 노여움을 용서받을 수 없거든 감히 龍王神에게 먼저 빌겠는가? 그러나 하늘의 뜻은 오직 용왕이 주도하는 바라 용왕의 간청이라면 하늘이 어찌 듣지 않으랴? 이때 비를 얻는 것은 관리의 효험이 아니뇨, 바로 용왕의 공입니다. 이 해가 흉년이 되지 않는다면 어찌 그 보답의 제사가 풍부하지 않으리까?」³⁶⁾

(A)는 전라도의 큰 고을인 전주와 나주에 관한 이야기이다. 고려 성종은 982년에 전국을 12목으로 나누고 각 목에 목사를 지방관으로 파견하였는데, 전라도에는 전주와 나주에 목사를 파견한 것이다. 오늘날 전라도는 이때에 탄생된 것이다. 이규보가 전주에 지방관리로 파견되었을때에 전주에 가뭄이 일자 용왕에게 기우제를 올리는 제신문을 지은 것이다. 어찌하여 전주에만 가뭄이 심한 것인가 자문하면서 정치를 잘못하여 생긴 일이라면 하늘의 노여움을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니와 어찌 감히 용왕신에게 빌겠는가 하면서 하늘뜻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36) 『東國李相國集』第37卷 哀詞 祭文

「一國之旱則在朝者差一方之旱則守土者罪惟此南方岐爲二界羅帶于陲全襟其會何彼境之得滋獨吾偏之未漚天豈有私而爲是歟殆巨吾輩之政穢天怒不可于詈敢先籲于稱神龍天之潭惟龍所澮龍之請天豈不從在斯時而得兩非吏之效而乃龍之功」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 하늘못이라는 이야기이다. 하늘못을 주도하는 용왕에게 비를 내리도록 기우제를 지내겠다는 것이다. 기우제는 지내는 곳을 하늘못(天之潭)이라고 표현해놓고 있다. 하늘못은 '신성한 못'을 의미한다. 하늘못은 물이 웅덩이에 고여 썩은물이 아니라 웅달샘처럼 항상 맑은 물이 솟아나는 곳이기에 붙여진 명칭으로 보인다. 고 이강오 교수는 덕진연못에 있었던 용궁각을 天門閣이라 불렀다는 자료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낸 바가 있다. 이러한 천문각은 전주를 하늘의 선경 세계로 묘사하고 전주로 들어오면 초입에 위치한 덕진연못이 하늘못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 하늘못은 백두산의 천지처럼 물이 용출하는 곳이었다. 백두산 천지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비룡폭포로 흘러내리듯이, 전주 덕진연못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북서쪽으로 흘러내렸고, 그 물을 담수하고자 쌓은 제방이 덕진제이다. 제방을 쌓은 이후에 덕진연못 물가에 서 지내던 용왕제(祈雨祭)를 용궁각에서 지내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실린 하늘못의 기록은 덕진연못이 천년의 역사를 가진 하늘못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규보의 하늘못과 기우제 이야기는 고려시대부터 용왕제가 거행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용왕제는 거행한 시절이 사월초파일(4.8)이었다. 사월초파일에 불교의례로서 용왕제를 지낸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불교의 용왕제가 민속신앙의 대상이었지만,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국교로 숭상하던 왕조였기에 사월초파일 용왕제는 불교의례였다. 용왕이 머무는 용궁은 불교의 천상세계인 도솔천 내원궁 밖에 있는 연못으로 도솔천을 호위하는 천룡이 용궁의 용왕으로 주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천상의 용궁이 덕진연못에 그대로 내려왔다고 전주사람들이 믿어왔던 것이다. 천상에서 용왕이 화향의 비를

내려주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는 의식을 덕진연못에서 의례적으로 거행한 것이다. 사월초파일 민속은 조선시대까지 지속되어 왔다.

(B) 전주는 사월에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가득하고 연등이 집집마다 걸려있는게 한양과 흡사하다. 佛心을 가진 사람들이 앞다투어 물가에 병풍을 두르고 용왕에게 굿을 하였다. -전주 고을 사월 초파일 풍속에 물위에 병풍처럼 천막을 설치하고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서로 유희를 즐겼는데, 이를 용왕에게 제를 올리는 것이라고 한다³⁷⁾”

(B)의 기록은 1780년경에 사월초파일에 전주에 내려온 김종정이 전주의 풍경을 보고 『雲溪漫稿』라는 책에 기술한 내용이다. 전주에서 사월초파일에 집집마다 연등을 내걸었는데, 불심을 가진 사람이 덕진연못의 용왕제에 와서 소원을 빌었다는 내용이다. 사월초파일에 덕진연못에서 용왕제를 지내면서 음주가무를 즐겼던 것이다. 이때에 용왕제를 주관한 자가 무당이었고 이러한 관행이 불과 30여 년전까지 용화부인이라는 보살이 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덕진연못에서 음력 4월초파일에는 용왕제를 지내고 5월 단오날에는 물맞이를 즐기던 민속이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덕진연못은 덕진과 연못의 합성어이다. 덕진(德津)은 ‘용왕제를 지내는 나루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천지담으로 ‘하늘못’ 이었다. 하늘못을 주도하는 자가 용왕이었다는 점에서 덕진의 덕은 용왕의 상서로움을 높여서 부르는 신성한 의미가 있다.

37) 金鍾正, 『雲溪漫稿』全州道中

「全州四月雜花香燈火家家似漢陽捨翠佳人爭約伴水頭屏帳賽龍王-州俗四月八日 設屏帳於水上相與飲食遊嬉 以祭龍王云」

하늘뚫이 도솔천의 용궁이 있는 천지요, 그 용왕을 천룡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한 연못은 '연화장엄한 못'이라는 연지(蓮池)를 뜻한다. 덕진연못의 문에 걸린 현판에 연지문이라고 쓰여있고, 연지의 가운데에 있는 팔각정이 연화정이며, 덕진연못 주변에 위치한 마을이 연화동이다. 연지가 곧 하늘뚫이요, 연화장엄한 불국정토의 세계, 즉 蓮花藏世界를 구현하기 위하여 용왕제를 지낸 것이 고려시대 용왕제의 관행이었을 것이다.

하늘에 거처하는 용은 천룡(天龍)이다. 하늘의 상제는 6마리의 용을 갈아타고 하늘을 운행한다. 만물의 조화는 하늘의 덕에 있다. 하늘의 덕은 모든 만물에 광명을 비치고 비를 내려 식물과 동물을 생장시킨다. 이는 모두가 만물의 조화를 부리는 '천룡의 덕'이라고 믿어왔다. 그리하여 대체로 용의 그림은 운중발룡(雲中發龍)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 건괘는 6단계의 변화과정이 있는데, 용을 등장시켜 식물의 생장을 6단계로 대비하고 있다. 건괘 6단계의 변화과정에 용(龍)이 비유되고 있다.

乾卦는 주역의 八卦 가운데 하나이다. 건(乾)은 하늘의 상징이다. 건은 사괘(乾坤艮巽) 가운데 상형에 속한다. 상형은 천지인의 道 가운데 천(天)에 해당한다. 건괘의 건은 하늘의 형체를 말한다. 하늘은 上帝라 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神이라고도 한다. 건괘는 끊임없이 만물을 창조하는 생명력의 근원으로서의 '천도'(天道) 또는 천계(天界)를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곤괘(坤卦)는 만물을 포용하고 길러주는 생육자의 땅으로 지도(地道)라고 한다. 덕진연못이 위치하는 곳이 건지산 꼬트머리이다. 전주의 산세가 건방향에 이르러 그쳤다는 말이지만, 또다르게 건지산(乾止山)은 “하늘에 이르는 산”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건지산 꼬트머리에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천문각(天門閣)이 있었고, 그곳을 용궁각(龍宮閣)이라 불렀다. 농사를 짓고나서 벼포기가 우순풍조하여 성장발육을 잘하도록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기우제의 대상은 천룡이며, 천룡은 천상의 세계를 주재하였던 것이다. 운중발룡하는 용의 형상은 불교의 호위신으로 등장하는 용의 모습이다. 도솔천 내원궁의 용궁을 그대로 모사한 곳이 전주 덕진연못인 것이다. 용왕의 덕스러움에 기대어 1,000년동안 살아온 전주 고을사람들은 풍요롭고 살기 좋고 화평한 연화장엄한 전주를 꿈꾸면 살아왔던 것이다.

Ⅲ. 전주 민속문화의 특성

민속은 무형문화재로서 현장성을 매우 중시한다. 현장에서 구비전승 자료는 오랜 세월동안 변화무쌍하게 변모하면서 원형 또는 본질이 왜곡되기도 하고 소멸과 생성의 다양한 변화를 추구해온다. 샅강의 강물이 그대로 흘러가는게 아니라 다른 물줄기를 만나 큰 분류로 향한다. 특히 민속은 쓰여지지 않는 구전의 역사이기에, 그 원형을 찾는 작업은 몇단계의 갈래타기를 시도하거나 원형질의 분류작업이 복잡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속자료가 구전이 아닌 문헌기록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정확한 해답이다. 전주의 성황제와 용왕제 관련 자료가 고려시대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일이다. 이 역사기록으로 천년 전주의 민속을 파악할 수 있고 복원할 수 있는 원형질을 찾은 것이다. 전주의 민속은 전주라는 그릇속에서 찾아야 한다.

고려시대 전주라는 고을에서 행해진 단오절 성황제와 물맞이 풍

속과 사월초파일 용왕제의 관행은 전주 고을사람들이 추구하였던 이상향과 현실에서의 문화적 능력을 보여주는 관습이요, 관행이라는 점에서 전주의 민속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민속이 혼돈을 겪는 것도 전주의 진가를 모르기 때문이다. 전주의 진산 문제로 왈가왈부한다. 불과 100여년전에 성황봉에서 승암산으로 바뀌고 다시 치명자산으로 바뀌면서 전주 성황봉의 본질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러한 역사인식에서 전주의 민속을 강조해볼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성황제는 민속 이전에 역사다. 역사계승의식이 민속에 생명력을 불어넣게 만들 것이다. 전주에서 현재 도시민속학이라는 관점에서 민속문화를 조사 연구는 할 수 있으나, 근대화 과정에서 원형질이 파괴되고 본질이 뒤틀리거나 빛바랜 전통문화에 매달린 채 민속문화를 찾는다는 것은 진정한 전주민속의 탐색이 아니다. 예를 들면, 전주사람들이 귀명창이라고 하면서, 대사습놀이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명창을 키우고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소리를 듣고 추임새를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인 진정한 전주문화를 잇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조선후기 전주에서 책을 찍어낸 판본을 '완판본'이라고 불렀다. 완판본은 완산주에서 책을 찍기 위해서 만든 목판본을 말한다. 그런데 완판본은 한양에서 만든 경판본보다 더 우수하고 품질이 좋았다고 한다. 책을 많이 만들어 팔았다는 것은 향유층과 소비층이 매우 두텁다는 것을 뜻한다. 전주에서는 책읽고 글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조선시대 전주 출신의 과거급제자가 많았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책을 많이 찍는다고 공부잘하는 것은 아니다. 붓글씨가 발달하고, 우수한 한지가 만들어지고 한식의 맛이 뛰어난 것도 전주 정서라는 물그릇과 같은 것이

다. 품격높은 사람들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전주고을에서 뿌리깊게 살아오면서 생성시킨 농축시킨 엑기스가 전주 민속이라고 생각한다. 엑기스의 제조 시점은 그 뿌리를 찾아 후백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후백제의 왕도가 조선시대 왕조의 본향을 만들어 낸 것이다. 한국 역사에서 한 도시가 왕도였다가 왕조의 본향을 둔 곳은 전주 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후백제시대에 매우 품격높은 왕도문화가 고려시대에 지방문화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의 문화적 토양에서 꽃핀 나무에서 결실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규보가 전주시민들에게 물려준 전주 단오절 성황제와 사월초파일 용왕제는 진정한 전주 민속의 원형질일 수 있다. 이러한 민속문화가 비록 자취를 감추었다 하더라도 가장 최근까지 내려온 내려오고 있는 문화를 복원시켜 천년동안 내려온 전주민속이 앞으로 천년동안 물 흐르듯이 흐르게 해야 한다.

IV. 맺음말

천년전주라면 천년전주의 전통문화가 오늘날 생활문화속에 살아 있게 해야 한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가 단지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다면 명분이 없다. 고려시대 민속을 살필 수있는 자료가 국내에는 별로 없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전주에서 관리로 부임하였던 대 문장이 이규보가 『동국이상국집』에 전주의 성황제신문과 용왕제신문이라는 역사기록을 남겨놓아 전주 민속의 역사를 잊게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무런 기록도 없는데 문화를 만드는 판에 얽연한 역사기록을 무시하고 방기한다면 더 이상 할말이

없을 것이다.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되살리는데 전주 역사를 부활하는데 전주문화를 진흥시키는데 천년의 기록을 부정하거나 왜곡시킨다면 어떠한 명분도 얻을 수 없다고 본다.

이 글은 대주제의 명제에 따라 역사기록을 통해서 전주의 민속을 살펴본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